

SWISS

watchland

스위스사람들의 시계에 대한 열정은 '메이드인 스위스'의 믿음을 진리로 만들었다. 인터라켄의 한 유명 시계 부티크와 박물관과 복원실, 시계 장인의 작업실 풍경은 곧 스위스 시계의 과학이자 예술, 역사이자 미래다. 시계의 사연이 일상의 취향이 되는 그곳에 갔다.

누

군가에게 시계는 패션, 혹은 과학이며 역사다. 세계적 캐비노티에(Cabinotier, 시계 명장) 앙트완 프레지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계는 기계와 사람을 소통시키는 예술품이다. 시계가 없으면 역사를 만들 수 없다." 시계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독점하는 곳, 명품보다 진정한

시계 광고들이 먼저 반기는 곳, 검소하지만 고급 시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도 있는 곳, 바로 스위스다. 취리히는 서울보다 추웠다. 기후는 시계산업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 국토의 80%가 산인 이곳 사람들은 겨울이면 와인 넣은 풍투로 몸을 데우며 시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5백 년이 지난 지금, 가나 수공업으로 시작된 스위스 시계산업이 어떻게 세계의 표준시가 되었을까?

사상 최고가인 3백48억원짜리 시계 브랜드이자 왕족, CEO 등이 선호하는 예술품 필립과택부터 혁신적 감각으로 스위스 시계의 재전성기를 이끈 스위치까지, 융프라우 아래의 관광 도시, 인터라켄은 시계 천국이다. 그 중 키호로퍼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시계 브랜드를 보유한 시계 가문이자 회사. 10년의 준비 끝에, 'Haute Horlogerie'라는 시계 부티크를 열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의 언론들을 불러 성대하 오픈링 파티를 개최하고 있다. '최고의 시계'라는 의미의 부티크는 1955년에 지어진, 인터라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에 자리하

고 있다. "오래된 것을 남겨라, 그것들은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좁은 길인 이 문구처럼 노련한 최고의 시계들이 저마다 빛내는 곳. '시계의 아버지'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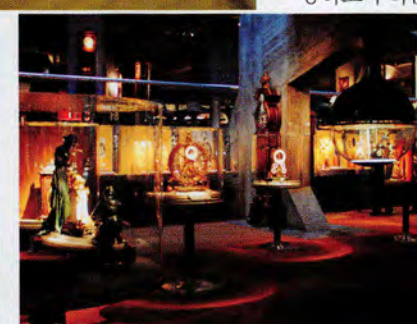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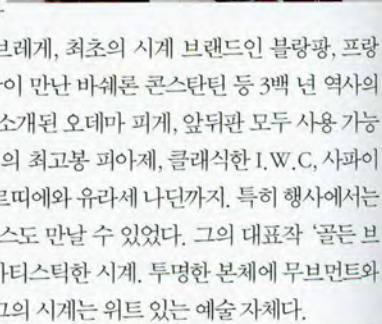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계를 만든 브레게, 최초의 시계 브랜드인 블랑팡, 프랑스의 디자인과 스위스의 시계철학이 만난 마세론 콘스탄틴 등 3백 년 역사의 시계부터 <터미네이터 3> 등에도 소개된 오메가 피계, 앞뒤관 모두 사용 가능한 리버스 방식의 예거, 보석 시계의 최고봉 피아제, 클래식한 I.W.C, 사파이어 케이스가 돋보이는 센트리, 까르띠에와 유라세 나딘까지. 특히 행사에서는 캐비노티에인 빈센트 갈라브레지스도 만날 수 있었다. 그의 대표작 '골든 브리짓'은 마니아들에게 추앙받는 아티스틱한 시계. 투명한 본체에 무브먼트와 숫자판 등을 완벽히 숨기고 있는 그의 시계는 위트 있는 예술 자체다.

이 곳의 시계는 상품 이전에 역사이자 문화다. 키호로퍼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매장이 아닌 시계 박물관처럼 꾸며 나갈 생각입니다. 시계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시계의 역사를 들을 수도 있으며, 철학도 나누는 곳으로. 최고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70년대 후반, 보수적이던 스위스 시계산업은 세이코 등 후발주자의 도전에 직면했었다. 이 난세를 극복한 것은 스위치였고 지금도 시계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지만, 한편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판매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는 것. 행사 후 호텔로 돌아와 보니, 메시지와 함께 키호로퍼 회사의 수제 초콜릿이 침대에 올려져 있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듯 특별한 느낌! Haute Horlogerie가 제 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런 느낌이다. "모든 시계는 이야기이고, 경험

1 라쇼드퐁 국제시계박물관의 로비를 장식하고 있는 시계. 2 인터라켄에 문을 연 시계 부티크, Haute Horlogerie의 외관. 3 스위스 시계의 자부심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 키호로퍼 가문. 4 라쇼드퐁 시계박물관의 복원실. 5 최초의 포켓 워치.



5



6

7

8

2

4

이며, 인간다운 면의 접촉이다"라는 키호르퍼 대표의 말은 오래 기억됐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은 스위스에서 곧 진리다. 화이트나 블랙다이얼판과 기하학적으로 순수한 라운드 케이스 등 표준 디자인은 로코코 시대의 산물. 2백년 전, 브레게가 만든 시계는 시계 제조의 표준으로 통하는 데, 아라비아 숫자와 '폼드'라는 시계 바늘은 '브레게 숫자'와 '브레게 핸드'라는 고유명사로 불린다. 그뿐인가. 보석상 루이스 까르띠에는 1904년, 대부 호이자기구 비행사인 알베르트 산토스를 위한 시계를 선물했다. 최초의 가죽 줄 남성 손목 시계로 기록된 '산토스' 디자인은 지금도 가장 사랑받는 모델. I.W.C는 '다빈치'라는 시계를 출시했는데, 이는 다빈치가 처음 보고는 설계도를 그려 유명해진 한 교회의 시계를 본 따 만든 것. 롤렉스는 튼튼하게 만들어진 스포티한 잠수용 시계로 출발했고, 오메가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함께한 후 우주에서도 착용 가능한 유일한 시계로 그 맥을 잇고 있다.

스위스 시계의 과거와 현재를 목격하기 위해, 다음 날 우리는 라쇼드퐁으로 갔다. 유라 산맥 바로 아래 스위스 시계 혁명의 진원지인 라쇼드퐁. 제네바처럼 모던하진 않지만 소박한 풍요로움이 흐른다. 작은 엔틱 시계숍에는 사연 있는 시계들이 정성스레 진열돼 있다. 눈이 즐거운 골목을 지나면 국제시계박물관에 당도한다. 필립파텍 시계 박물관과 쌍벽을 이루는 이곳은 19세기 말 시계 학교에 만들어진 자료실이 전신. 지동설 시절의 시계부터 대장장이가 만든, 가장 오래된 패종 시계, 엘리자베스 여관의 대관식에 쓰인 바게트라는 작은 패션 시계,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바로크 시계, 최초의 스킨레톤 시계, 최신식 위성 시계까지, 총 4천 여 점의 컬렉션이 사용 가능할 듯한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특히 라쇼드퐁 국제박물관 복원실은 스위스 시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빼어난 실력으로 유명하다. 우리가 출입금지인 복원실에 들어 갔을 때 이들은 벽시계를 복원하고 있었다. 필립 드포와 함께 프랑스 캐비노티에의 양대 산맥인 프랑소와 포 주른이 직접 의뢰한 것인데, 원래는 드 특슈라는 시계 장인이 1855년 만든 작품이다.



물론 이 사실은 복원사들이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져 찾아냈다. 이들은 경매를 통해 국적과 기원이 불분명하지만 흥미로운 시계를 직접 구입, 복원하기도 한다. 시계 복원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새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 시간의 흔적을 안고 있는 시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다. 이 시계만 하더라도 3명의 복원사들이 3년 동안, 3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복원하는 중



이 시계만 하더라도 3명의 복원사들이 3년 동안, 3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복원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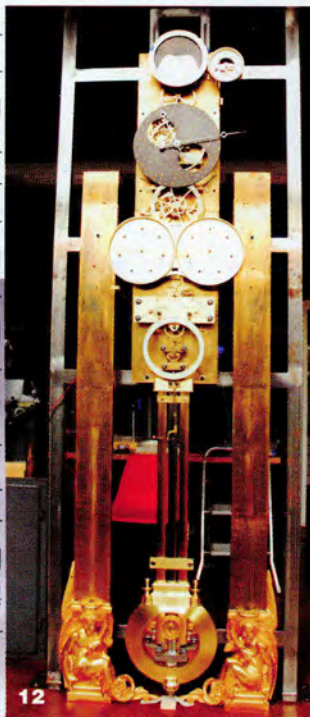
이 시계만 하더라도 3명의 복원사들이 3년 동안, 3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복원하는 중

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30년 경력의 복원사 다니엘은 "어설픈 예술가가 되기보다는 정확한 기술자가 되겠다"고 말한다. 파리의 어느 시계 숍에 초라하게 진열돼 있던 이 시계는 시대의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시계의 심장 격인 무브먼트를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캐비노티에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앙트완 프레지우스, 필립 뒤포, 빈센트 깔라브레지스, 그리고 폴 게버 등등. 실력은 물론 마케팅에도 적극적인 앙트완 프레지우스는 '시계의 피카소'로 불린다. 반면 대부분의 캐비노티에는 작은 작업실에 은둔해 시계를 만든다. 우리가 만난 폴 게버처럼. 폴 게버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기네스 북에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를 만든 사람'으로 기록된 진정한 캐비노티에다. 이 작품은 국내에도 잘 알려진 프랭크 윌러와의 합작이지만, 결국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파트는 모두 폴 게버가 완성해서 더욱 인정을 받았다. 어수선한 창고에는 그의 전작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업실에는 제자로 보이는 세 명의 청년이 1mm의 세계와 싸우고 있었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그의 시계를 갖는 것이 꿈일 정도로, 폴 게버는 무림의 고수다. 그의 이름을 브랜드로 제작하지는 유혹도 많았다. 하지만 폴 게버는 대량생산으로 물개성한 시계를 만드느니 시계박물관의 소장용 시계를 개발하길 원하는 사람이다. TV를 보다가도 영감이 떠오르면 14시간 이상을 시계에 매달리는 그는, 과학자를 닮았다. 최근 프랑수아 <보그>에서도 소개된 트루비용(중력으로 인한 시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기술)의 영감을, 그는 낡은 탁상 시계에서 얻었다. 그렇게 개발한 레트로그라드, 더블 크로노, 퍼펙추얼 캘린더, 미닛 리피터 등 고급 기술들은 유명 브랜드의 프로토타입이 되었다. 직접 무브먼트를 깎아 만들 뿐만 아니라 숫자를 디자인하고 색상을 정하는 그는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절대적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오만할지 모르지만, 그 오차를 최소화하고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해 시간을 잊은 폴 게버의 땀은 정직해 보였다.

여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던 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등장한 필립파텍의 광고를 보았다. 문득 나의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회색 코트와 체크 바지, 수제 엔틱 선동기, 그리고 오메가 시계를 아끼신다.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가 시계를 닦고 다듬는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에 오메가가 세상에서 가장 고급인 줄로만 알았다. 어쨌든 오메가 시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청년과 노년 시절을 모두 공유한 유일한 시간의 조각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지금 친구에게 장난 삼아 빼앗은 몽블랑 짝퐁 시계를 차고 있다. 혼이 시계를 지배하고 시계를 만들고 간직할 때의 마음이 일상의 근사한 취향이 되는 나라, 스위스에 오면서 무념무상으로 시계를 주워 차고 왔다는 것에 후회했다. 스위스는 절대 시끄러운 적이 없었다. 대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창조하는 시계의 장인들처럼, 스위스는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시계의 존재가 '시간을 보는 도구' 이상임을 몰랐느냐고 내게 잠깐 묻고 있었다. ●



에디터 / 윤혜정

6 라쇼드퐁 국제시계박물관 내부 전경. 7 작업 중인 시계 복원사. 8 Haute Horlogerie내 브레게 시계만을 위한 풀. 9 폴 게버가 프랭크 윌러 등과 합작해 만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 10 작업 중인 시계 과학자, 폴 게버. 11 '골든브릿지'로 유명한 캐비노티에, 빈센트 깔라브레지스. 12-13 1855년에 만들어진 벽시계로 3년간 복원 중이다. 아래는 이 작품에 관한 자료.

